

한국산 자동차가 이스라엘의 거리를 누비고 다니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도 첨단 기술이 발달된 이스라엘과 제조업이 발달된 한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보는 것 같았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을 주 상대로 교역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는 아시아에 진출하는데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본문 중에서>

이스라엘의 산업과 대학



1. 머리말

우 리나라 통상산업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 육성 정책을 관찰하고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상호 기술 및 경제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에너지 협력단”을 구성하여 1997년 7월 13일부터 16

일까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 글은 한국공학한림원에서 협력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이스라엘 산업통상부와 그 산하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간단히 서술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다. 국토면적이 21,946 평방km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며 (한반도의 8분의 1에 해당됨.) 그 중에 70%는 사람이 살 수도, 식물이 자랄 수도 없는 불모의 땅이다. 전체 인구는 576만 명으로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의 반에 불과한 셈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적대국으로 둘러 싸인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살아갈 길은 수출에 의존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한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 뿐이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제조업보다는 첨단기술에 근

거한 소규모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과학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근에는 고급 기술을 이용한 벤처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대기업 중심 체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산업 구조의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거국적으로 벤처 기업을 육성하려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배울 것이 많은 것 같다.

이스라엘에서 벤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시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 러시아에서 무더기로 이민이 몰려오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무려 75만 5천명이며 이 중 대부분이 러시아 이민이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중 약 반이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과학 기술자였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또한 이들의 직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책적으로 러시아에서 이민 온 과학 기술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벤처 기업을 창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미 벤처 기업 육성 정책이 몇 년째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벤처 산업의 대부분이 대학과 연계되어 대학 근처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선 이스라엘의 산업 전반에 걸쳐 소개한 후 대학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벤처 산업과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공학 한림원 회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아카데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2. 이스라엘의 산업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인구 576만 명이 약 2만 2천 평방km 땅에서 살고 있으며, 1996년 GDP가 950억 달러, 1인당 GDP가 1만 7천 달러 가량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다. 거리에서 가진

느낌도 사는 형편이 대략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 느꼈다. 개략적인 경제 형편을 알아볼 수 있는 1996년 경제 지표를 표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6년 무역 적자가 127억 불 이고, 인플레이션이 10.6%로 경제가 썩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화 협상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방비로 지출하는 돈이 많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체감 경제는 몇 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며,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IT) Director-General(우리나라 차관에 해당함.) Mr. Dov Mishor는 첫날 인사에서 1987년과 1997년 사이에 변화된 이스라엘 산업 구조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첫째, 세계화(Globalization)와 개방화(Openness)를 들었다. "Open A to Z"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무역 규모이다. 1985년 140억 달러 이던 무역 규모가 1995년 47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주요 생산품이 섬유, 목재, 건축 자재 등에서 전자, 통신과 같은 첨단기술 제품으로 변한 것이다. 현재는 산업 제품

표 1. 1996년도 이스라엘 경제 지표

면적	21,946 평방km
인구	5,757 천명
GDP	95,743 백만 달러
1인당 GDP	16.9천 달러
GDP 증가율	4.4%
인플레이션	10.6%
실업률	6.5%
수입액	426억 달러
수출액	299억 달러
수출입 적자액	127억 달러

자료 : Israel's Economic Overview, Israel Export Institute, April 1997.



수출 중 50% 이상이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는 인플레이션 감소를 꼽았다. 1987년 19.5% 이던 인플레이션이 1996년 10.6%로 감소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 발전을 통하여 수출을 늘리고 고용 증대와 높은 부가 가치 창출로 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스라엘에서 방문하는 곳마다 연구와 기술 발전, 그리고 벤처 기업의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외무부를 방문했을 때 중동경제담당관 Mr. Mark Sopher는 우리 일행 앞에 중동 지도를 펼쳐 놓고 중동경제권 개발에 대하여 열렬히 설명하였다. 목표는 평화 협상을 진전시켜 중동 전국가(모로코에

서 걸프국까지)를 결합하여 EU형태의 지역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를 매크로 서클(Macro Circle)이라 칭하였고 이보다 앞서 이스라엘-이집트 또는 이스라엘-요르단 등 2국간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팔레스타인을 엮는 4국간 경제권을 형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들 4개국을 핵심 서클(Focal Party Circle)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안된 것이고 경제 외적인 측면, 즉 정치, 민족적 감정, 종교,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해 볼 때 중동경제권은 요원해 보였다.

이스라엘 정부나 국민들이 한국에 갖는 관심은 꽤 높아 보였다. 우선 두 나라의 교역 규모에서도 이 점이 잘 반영되고 있다. 1986년 교역 규모가 6천 5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꾸준히 늘어 1996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7억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두 나라의 수출과 수입 사이에는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수

입 품목으로는 자동차가 단연 우세하였고, 한국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 칩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자동차 공장이 없으며 거리에 굴러 다니는 차는 전부 외제차뿐이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5%이고 앞으로 점차 늘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세를 잘 부리지 않고 실속을 차리며 경제적인 잇속이 밝아 성능이 일본 차에 비하여 과히 떨어지지 않고 값이 싼 한국 자동차를 선호한다는 것 이었다. 사실 길을 다니며 현대, 대우, 기아와 같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지금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일본 자동차를 앞으로 따라 잡을 수 있

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었다. 자동차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이라서 그것이 한국을 이스라엘에 널리 알리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군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미사일, 군용기, 레이더 등의 성능은 미국과 러시아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이들은 이스라엘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팔려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고급 군용 기술을 민간 산업에 이전 시키는 민군 겸용 기술에 관심이 많았으며, 평화 협정과 함께 국방비를 차츰 감소시켜 나감으로써 방위 산업체가 군용뿐 아니라 민수용 제품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현재 대부분 국영으로 운영되는 방위산업체를 차츰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에너지 협력단이 방문한 곳 중에는 HiTEC-Technology Entrepreneurship Center Har

Hotzvim이라는 창업센터(Technology Incubator)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Har Hotzvim 과학공원(Science Park)에 위치한 이 센터는 이스라엘 전국에 퍼져 있는 26개의 창업센터 중 하나이다. 5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주 설립 목적은 갑자기 들어닥치는 러시아 이민 과학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민 과학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법률, 경영, 세금에 대한 자문과 사무 보조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재미 있는 것은 이 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2개의 대학과 13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 그리고 2개의 금융기관이 후원 단체를 형성하여 필요한 지원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센터에는 현재 1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 3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미 졸업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는 기업도 5, 6군데가 된다고 소개

표 2. 이스라엘의 주요 대학

대학	위치	교원수	학생수	학위	분야	전화	팩스
Bar-Ilan U.	Ramat Gan	1,000	13,280	BMP	LPS	03-5318402	03-6771088
Ber-Gurion U.	Beersheva	780	6,500	BMPR	EHLPS	07-461111	07-281340
Hebrew U.	Jerusalem	2,100	22,250	BMPR	HLPS	02-882111	02-664740
	Rehovot(Agr)	120				08-481186	08-462181
Jerusalem College of Technology	Jerusalem	80	400	B	ELP	02-751111	02-422075
Technion	Haifa	1,600	9,610	BMPR	E	04-292111	04-221581
Tel-Aviv U.	Ramat Aviv	1,700	22,000	BMPR	EHLPS	03-6408111	03-5414556
U. of Haifa	Haifa	790	9,500	BMP	S	04-240111	04-342104
Weizmann I.	Rehovot	475	700	MP	N	08-342111	08-466966

B=Bachelor, M=Masters, P=Ph.D., R=Rofeh(M.D.), E=Engineering, H=Health/Medicine, L=Life Science, P=Physical Science, N=Natural Science-L+P, S=Social Sciences, Humanities, Law, etc. 자료: Science in Israel, Ministry of Science and Arts, 1994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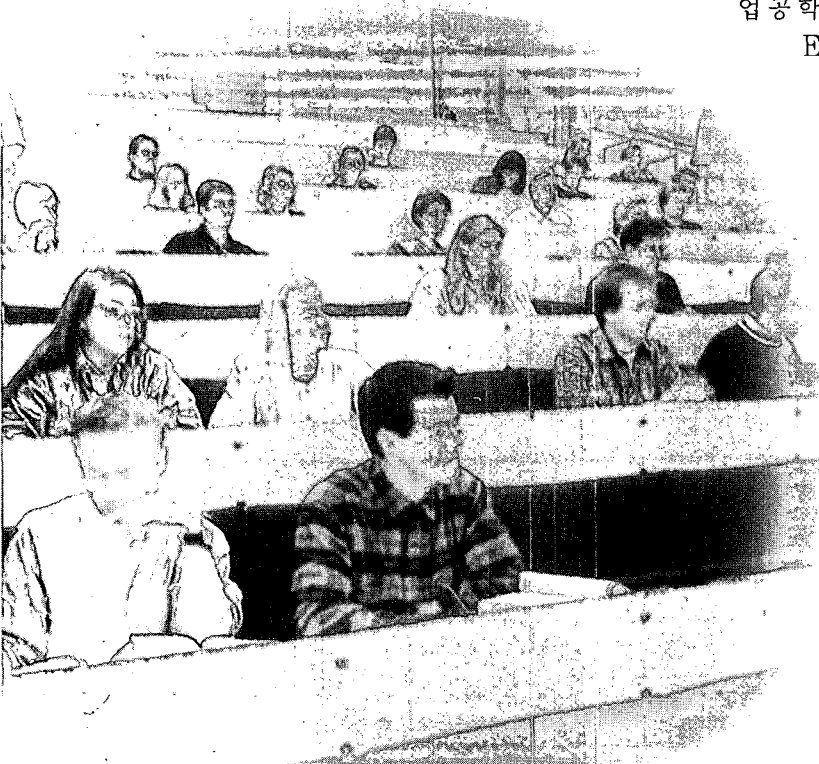
3. 이스라엘의 대학

이스라엘에는 주요 대학이 8개 있다. (표 2 참조) 이들 중 공과대학을 가진 곳은 테크니온(Technion -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을 비롯하여 텔아비브 대학 (University of Tel Aviv), 벤구리온 대학(Ben-Gurion University), 예루살렘 기술대학 (Jerusalem College of Technology) 4곳 뿐이다. 이스라엘 대학은 공식적으로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학기가 음력 1월 1일에 해당되는 양력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시작되어 2월 중순경에 끝나고, 2학기는 3월 초에 시작되어 7월 초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다. 우

리가 방문한 7월 중순에 막 방학이 시작되어 대학이 한산한 느낌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테크니온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공과대학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 엔지니어의 약 70%가 이 대학 출신이라고 말했다. 테크니온은 이스라엘 북쪽 항구 도시인 하이파(Haifa)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1924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대학으로써 아주 쾌적한 캠퍼스를 갖고 있었다. 8,000명의 학사과정 학생과 3,0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650명의 정년 보장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테크니온은 19개 단과대학(Faculty)이 크게 4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농공학 대학(Agricultural Engineering Faculty)을 포함한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의과대학(Medical Faculty)을 포함한 생명과학(Life Science) 계열, 산업공학 및 경영 대학(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Faculty)이 속한 경영 계열로 구성되어 있었다. 테크니온 총장인 Dr. Zehev Tedmor는 테크니온이 산업체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대학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가 산업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국방과 농업, 그리고 핵 물리를 제외하고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없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없어 산업체에서 필요한 연구는 대학에서 대부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대학과 산업체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Israel Aircraft Industry(IAI)가 테크니온 항공우주공학과(Aerospace Engineering Faculty) 실험실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대학마다 창업회사가 있는 것이 특색이다. 테크니온에도 Technion Entrepreneur-ial Incubator Company (TEIC)가 1991년에 설립되어 많은 벤처 기업을 배출시키고 있었다. TEIC가 설립된 이래 39개의 회사가 창업하였으며 이들 중 5개가 문을 닫았을 뿐 나머지는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 대부분 의료, 재료 및 전자에 관련된 회사들이며, 대학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특허를 낸 후 TEIC의 도움을 받아 창업된 것들이다. 우리가 방문한 한 회사는 10년간 화학공학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를 특허를 얻어 압축 공기 건조기를 개발하여 이미 미국과 독일에 있는 컴프레서 전문 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상담을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와이즈만 과학원(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은 연구와 교육을 겸한 기관으로 2,500명의 과학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 중 300명이 교수 겸 책임연구원이고 800명이 대학원생이다. 학사과정 학생은 없으며, 2,500명의 연구원이 5개 대학(Faculty)과 18개 학과(Departments)에 소속되어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5개 대학은 생물학(Biology), 생물리 및 생화학(Biophysics-Biochemistry), 화학(Chemistry), 물리(Physics), 수학(Mathematical Sciences)으로써 연구원의 50~60%가 생명과학(Life Science)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와이즈만에서는 현재 900개

정도의 연구 과제가 진행중이며 이 중 80~90%는 기초 과학이고 10~20%가 산업 응용(Commercial Application)을 위한 연구이다. 와이즈만의 1년 예산 규모는 1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며, 이 중 정부 보조가 35%, 수탁 연구비가 25%, 기부금이 20%, 그 밖의 수입이 20% 가량 된다. 그 밖의 수입 중에는 사업 수익금(Corporate Income)이 포함되는데 테크니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벤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시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 러시아에서 무더기로 이민이 몰려오면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기술을 개발하여 외국에 파는 것이고, 기술은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 결과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과학자와 공학교육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로 와이즈만에도 예다(Yeda Research and Development Co., Ltd.)라는 창업 회사가 있었다. 예다에는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특허 사무실을 갖고 있다. 매년 70~80개의 특허를 국내 외에 출원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1996년에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참고로 말하면, 특허로 얻는 수입 중 40%는 연구원 개인에게 돌아가고 60%는 학교로 돌아 간다. 이것이 연구원에게 주어지는 장려금인 셈이다. 예다에는 15개 정도의 창업회사(Start-up Companies)가 현재 활동 중에 있었다.

와이즈만에서 방문한 곳 중에 태양에너지 연구소(The Canadian Institute for the Energies and Applied Research)가 있었는데 그 곳에는 64개의 연구용 태양열 집광판과 54m 짜리 태양열 타워(Solar Tower)가 있어 태양 에너지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었으며 여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 1년 중 300일 가까이 햇빛이 난다니까 태양열을 이용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곳곳에 지붕에 태양 판을 얹혀 놓고 물을 데워 쓰는 것이 눈에 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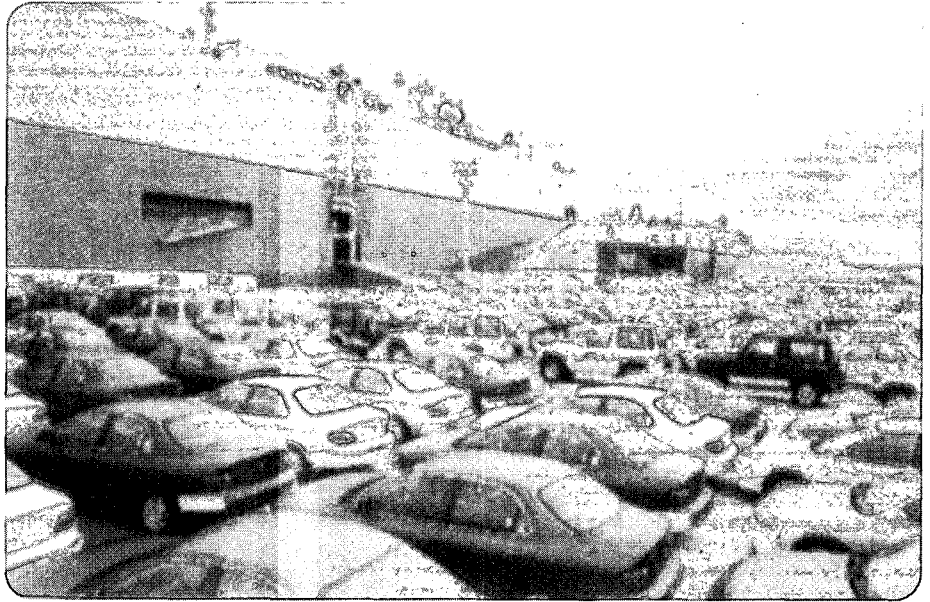
아카데미 이스라엘에는 아카데미가 하나 있었다. “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가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세운 후 6년 뒤인 1954년 교육부 장관이던 Prof. Ben-Zion Dinur가 중심이 되어 2개의 독립적인 아카데미를 세운 것이 시초가 되었다. “Academy of Sciences”와 “Academy of Humanities”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1959년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수상인 David Ben-Gurion에 의하여 두 아카데미가 합쳐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카데미 회원은 과학(Sciences) 분과에 30명, 인문학(Humanities) 분과에 30명으로 구성되며, 회원은 종신제이다. 다만 75세가 넘으면 회원 자격은 유지하되 정원 수인 60명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회원 수는 60명이 넘는 셈이다. 회원은 각 분과에서 추천되거나 6명으로 구성된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천거되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된다. 총회에서 회원으로 당선되려면 비밀 투표에 의하여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다. 아카데미가 하는 일로는 회원을 선출하는 일과, 이스라엘의 학술과 과학을 진흥시키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와 과학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하는 것이다. 자체 출판사를 가지고 아카데미에

서 학술 진흥을 위한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카데미가 갖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해외에 있는 아카데미들과 상호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이며, 20여 개의 해외 아카데미들과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 학술원과도 1990년에 협정서를 체결하여 교류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하는 일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카데미 산하에 과학재단(Israel Science Foundation)을 두어 대학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과학재단의 1996학년도 예산은 2천 4백만 달러로 이 중 481만 달러를 신규로 일반과학(Exact Sciences)과 기술(Technology)에, 452만 달러를 생명과학(Life Sciences)과 의학(Medicine)에, 그리고 96만 달러를 인문학(Humanities) 및 사회과학(Social Sciences) 프로젝트에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계속 과제 및 학술대회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지원한 신규 과제는 210개로 909건의 지원 과제 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이스라엘 과학재단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연구비를 분배하고 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보통 3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연구 장비 지원금으로 건 당 15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연구센터를 선정하여 연간 30만 달러씩 지원하며, 또한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5. 맺는 말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세워진 나라이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뿐 아니라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었으며, 정부 관리, 연구원, 교수 등 지식인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답게 연구나 산업 기술이 세계를 무대

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방문한 테크니온과 와이즈만 대학의 교수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거의 대부분 해외에 한 두 달씩 머무르면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세계화 및 개방화가 이스라엘에서도 중요한 정책 기조로 되어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건국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계화 및 개방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작은 국토에 부존 자원이 부족하며 적대국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활로를 외국과의 교류와 수출에 두고 있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제조업보다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두뇌집약적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기술을 개발하여 외국에 파는 것이고, 기술은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 결과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과학자와 공학교육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 고용인 1만 명당 130명이 과학, 기술자로서 미국의 77명과 비교하여 두 배에 가까운 숫자이다. 최근 전자 및 컴퓨터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공학교육과 기술자들의 고용 기회도 확대되고 대우도 좋아 (전기, 전자 및 컴퓨터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초봉이 연 3만 달러 수준임.) 고등학생들 사이에 공과대학

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한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정부 각 부처에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두어 과학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과학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 자동차가 이스라엘의 거리를 누비고 다니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도 첨단 기술이 발달된 이스라엘과 제조업이 발달된 한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보는 것 같았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을 주 상대로 교역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는 아시아에 진출하는데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국으로써는 중동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이 시장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지며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과 교역의 증대는 양 국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